

사이 여름 콘서트 '흠뻑쇼' 5년 만에 부활

가수 사이가 5년 만에 대규모 여름 콘서트 '흠뻑쇼'를 펼친다. 사이는 7월 29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과 8월 4·5일 서울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2017 사이 흠뻑쇼 SUMMER SWAG'를 연다. 2011년과 2012년 여름에 펼친 무대의 연장이다. 사이는 정규 8집 타이틀곡 'I LUV IT'으로 활동 중이다.



승려→트럭운전사→사업가→늦깎이 가수…양용모의 파란만장 인생

“내 목소리로 전국서 노래 봉사…최고의 행복”

눈물의 청년기…사업 성공 후 매년 봉사 친구 권유로 55세 가수 데뷔…행사 순회 “저 가수 계속보고 싶다는 말 듣고 싶다”

인생의 행복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라. 트로트곡 ‘아서라 마서라’로 활동 중인 양용모(57)는 뒤늦게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선 늦깎이 가수다.

2014년 55세에 데뷔한 그는 10대 때 승려가 됐다가 20~30대에 공장 노동자, 트럭운전사, 농부 등으로 고된 청춘을 보냈다. 40대에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겪는 동안 삶의 의미와 봉사의 가치를 깨달았고 “행복하게 노래하는 가수”가 됐다.

양용모는 충남 공주 계룡산 기슭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공부할 하려고 중학교 3학년 때 경남 함천 해인사에 들어갔다 그대로 출가해 ‘성우’라는 법명으로 7년을 승려로 살았다. 방위병(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면서 집을 떠났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스며들게 됐다.

살길이 막막했던 양용모는 사회의 밑바닥에서 피와 땀, 눈물로 청년기를 보냈고,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보자며 대전에서 트럭 몇 대로 물류사업을 시작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다. 돈을 벌고 나니 부모는 이 세상에 없었다. 만시지탄 속에서 그는 “우리 부모 같이 힘든 분들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했다. “승려로 수도하며 이해와 베품을 배운” 양용모는 대전 서구 지역의 독거노인, 차상위층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쌀도 나눠주며 사물놀이 공연으로 위로하는 봉사를 시작했다. 2000년 ‘동월단’이라는 사물놀이패를 만들었고, 2009년에 노래예술훈단으로 키워 마당극을 펼치면서 가수도 초대하는 ‘잔치’로 발전시켰다.

정기행사로 노인들을 돌보던 그는 가수 섭외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체감했다. 출연을 약속했던 가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직접 장구를 치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평소 창에도 소질이 있던 터였다. 친구인 작사가 이승학이 그의 노래를 듣고 가수를 권했고, 작곡가 송광수

를 소개했다.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2014년 첫 음반을 냈다. ‘나무 같은 인생’ ‘니가 좋더라’ ‘아서라 마서라’ 등이 수록된 앨범이다.

양용모가 매년 여는 행사가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600~700명의 노인들이 몰린다. 후원도 받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그가 부담한다. 가정형편상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자신의 회사직원들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남을 돕다보니 사업이 더 잘 된다. 누군 돕는다는 것보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기쁘다. 봉사활동은 내겐 힐링이자 활력소이고 자녀에게 전 산 교육이다.”

전국을 다니며 방송무대나 행사장에서 노래하는 일은 그에게 “요즘 최고의 행복”이다. 그 즐거운 마음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며 또 행복감을 느낀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인생 후회도 없고 큰 행복이다.”

‘아서라 마서라’는 전국 노래교실의 애창곡으로 꼽힌다. KBS 1TV ‘전국노래자랑’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불린다. 그렇다보니 어느 행사장을 가더라도 따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인기스타는 아니지만, 가수로서 바람은 있다. ‘가수 양용모’로 인해 좋은 향기가 널리 퍼졌으면 한다. ‘저 가수 계속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다. 사업도 잘 유지돼 직원들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김현겸 기자 gymmy@donga.com

양용모는

▲1960년 12월17일 충남 공주 태생 ▲2014년 첫 앨범 ‘니가 좋더라’ 발표 ▲합천 해인사에서 승려로 수도(1975~1982) ▲공장노동자, 건설노동자, 트럭운전수 등 경면 ▲현 유원물류 대표 ▲2005년 나래엔터테인먼트 설립해 마당극, 사물놀이 등 공연기획 ▲대전 서구지역에서 독거노인에 쌀 나눔 봉사, 청소년 장학금 봉사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상



양용모는 20대에 화물트럭을 몰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1년에 한두 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꼬이는” 후유증을 얻었다. 이 때문에 몇 시간 운행되는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했다. 양용모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서 20년 앓던 그 후유증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했다. 사진제공 | 나래엔터테인먼트

‘아버지가 이상해’ LTE 속도로 연장

시청률 31.7%…30회만에 연장 이례적

KBS 2TV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가 ‘인기=연장’ 공식에 이어간다.

14일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상해’ 제작진은 당초 기획한 50부에서 2~4회 정도 늘리기로 의전을 모으고 일부 출연자들에게 전달했다.

더 많은 등장인물의 사연을 소개하고 스토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주말극의 연장은 ‘의례행사’로 여겨진다. 앞서 최근 2년 동안 방송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아이가 다섯’ ‘부탁해요, 엄마’ 모두 30%를 넘는 시청률과 인기에 힘입어 4회씩 연장한 바 있다. ‘아버지가 이상해’도 마찬가지로지만 좀 더 빠른 시점에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선을 모은다.

드라마는 현재 30회까지만 방송을 마치고, 제2막을 예고했다.

극중 변혜영(이유리)과 차정환(류수영)이 1년 계약결혼에 합의하고, 이복남매로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안중희(이준)와 변미영(정소민)이 남녀관계로 호를 조짐을 보이는 등 앞으로 풀려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30회가 31.7%(닐스 코리아)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의 관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도 높다.

출연자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연장을 거론한 것 자체가 높은 인기를 방증한다”며 “현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대부분의 출연자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음반이냐, 아니냐…‘지드래곤 USB’ 그것이 문제로다

USB 속에 다운로드 음원사이트 링크 음원첩 “음반 인정 어렵다” 최종 결론 한터차트는 “음반 간주” 차트에 반영

지드래곤의 USB 앨범이 음반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일 지드래곤의 새 미니앨범 ‘권지용’의 오프라인 매체가 USB로만 출시되는 가운데 이를 음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음원협)의 해석으로 논란을 모을 전망이다. 음원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공인 음악차트인 가온차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의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USB도 LP나 카세트 테이프, CD 등과 같이 음악 저장매체의 역할이 가능해 음원협은 당초 지드래곤의 앨범을 계기로 이를 음반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드래곤 USB는 실행을 시키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해 케이스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음원협은 사실상 음원 다운로드 장치로 보고 음반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음원협은 이를 ‘키노 앨범’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키노 앨범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앱을 이용해 음원과 뮤직비디오, 화보 등을 다운로드 받도록 제작된 신 개념 음반이다. 음원협은 이를 음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권지용’은 가온차트의 앨범 판매량 차트에 오를 수 없게 된다. 방



지드래곤이 19일 선보일 USB 앨범 ‘권지용’. LP와 카세트 테이프, CD에 이은 음반의 ‘4차 혁명’의 시발점으로 평가되지만 ‘음반’으로 인정받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송사의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 SBS ‘인기가요’와 MBC ‘쇼! 음악중심’은 가온차트의 음반 판매량을 순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드래곤의 USB앨범을 구매하는 것은 ‘음반을 구매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아 음반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음악시장의 환경과 음악 저장매체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 형태와 저장 방식으로만 음반의 기준으로 삼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사실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의 경우 ‘권지용’을 ‘음반’으로 간주하고 앨범 차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음원협은 지드래곤 USB를 음반으로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파를 것이라며 우려한다. 텅 빈 일반 USB로 지드래곤 음원만 다운로드 받거나,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USB에 담은 것도 음반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음반으로 인정하면 ‘사제기’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다.

김현겸 기자

김남길의 사극사랑 이번엔 조선제일침

tvN ‘명불허전’ 이어 새 영화도 사극 선택



김남길

연기자 김남길이 ‘사극 불패’에 도전한다.

김남길이 새 드라마와 영화 출연작을 모두 사극으로 선택하고 흥행몰이에 나선다.

먼저 공략할 무대는 안방극장이다. 8월 방송 예정인 케이블채널 tv

N 주말드라마 ‘명불허전’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한의사 허임 역을 맡고 4년 만에 시청자 앞에 선다.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는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판타지 메디컬 드라마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사극 분량을 김남길이 책임진다.

팬들과 드라마 관계자들이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김남길이 유독 사극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과거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비담 역을 맡고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스타덤에 오른 그는 영화 ‘해적’을 통해서도 관객 860만명을 동원했다.

김남길은 영화에서도 분위기를 이어갈 태세다. 정지영 감독의 새로운 영화 ‘도깨비’(가제)에도 출연한다.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반기 촬영을 시작한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무고한 백성이 국경을 침략한 여진족으로 오해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김남길은 변방 마을사람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역을 맡았다.

영화는 촬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드라마 준비에 한창인 그는 요즘 침술을 배우고 있다. 드라마에서 선보일 허임이 허준과 동시대에 살았던 ‘침구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역을 쓴다고 해도 기본기를 익혀야 한다는 마음에 현재 한의사에게 침술을 배우는 등 공부에 한창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서인국, 병역판정 재검서 5급 판정

가수 서인국(30)이 병역 판정 재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켈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4일 “이달 5일 대구 중앙신체검사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내린 좌측 발목 거골의 골연골병변(박리성 골연골염)으로 5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역법 상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이에 따른 병역 의무는 전시상황 등에만 이행한다. 서인국은 3월31일 경기 연천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집환 상태가 드러나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에 즉시 귀가했다. 4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뒤 추가 정밀검사까지 받았다.

염정아·소지섭 등 단편영화제 명예 심사위원

배우 염정아, 소지섭, 김고은, 김옥빈이 단편영화제 명예 심사위원이 됐다. 이들은 김상범 편집감독과 함께 29일 개막하는 제16회 미장단단 단편영화제의 명예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각각 ‘비정성시’(사회적 관점을 다룬 영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멜로드라마), ‘희극지왕’(코미디), ‘절대악몽’(공포, 판타지), ‘4만번의 구타’(액션, 스릴러) 등 경쟁부문 상영작을 심사한다.

책 랭킹

자료:교보문고 5월 31일~6월 6일

1위 책 정보보기



순위	제목	작가
1	문재인의 운명	문재인
2	언어의 온도	이기주
3	잠, 1	베르나르 베르베르
4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5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6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김신희
7	오직 두 사람	김영하
8	말의 품격	이기주
9	자존감 수업	윤홍균
10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